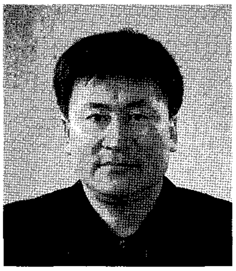
대군업자의 협조가 절실…



조 성 일
동두천채란분회장

최근 채란업계가 비상계엄 사태에 들어갔다. 경기지역을 중심으로한 분회들이 감축운동을 선언하고 나섰으며, 홍성지역의 양계인이 삭발을 하고 대정부에 채란업의 심각성을 호소하는가 하면, 지방에서는 대규모 양계인들이 '더 이상 못참겠다'며 시위를 계획하는 등 일촉측발의 일련의 사태가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연초에 노계도태자금을 지원,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실정이며, 사태가 더욱 악화되자 이를 간파한 농림부에서는 국방부에 계란소비 증량 등을 요구하는가하면 각종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수습을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기적인 해결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채란업의 당면문제는 생산과잉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육수수를 줄이고 홍보를 통해 계란소비량을 늘려가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4월 한 달동안 농가에서는 병아리 분양을 받지 않는 달로 정하고, 빈계사는 6개월 이상 계사를 비워놓기 운동을 벌이자는 것이다. 또한 어려울 때일수록 자조금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경기불황 타개는 물론 계란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군업자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10만수 이상 채란업자들이 자율단체를 구성하여 그 대표들이 협회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등 생산감축에 대해 충분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자조금 조성에 있어서도 규모가 많을수록 누진률을 적용하여 갹출되어야 할 것이다. 즉 10만수까지는 1만수당 100만원, 20만수까지는 1만수당 200만원을 갹출하자는 것인데 이 자금은 농림부에서 특별 관리하면서 농가에 경영자금으로 저리융자를 하는가하면 외국에 수출보조자금으로 활용하여 채란업 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또한, 계란소비량 증가대책과 관련하여 계란 가공산업을 육성시켜 과잉생산시 이를 가공제품으로 처리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첨언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난가 현실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하는 것도 채란업을 위한 하나의 길이라 생각한다. 양계